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처세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공 전략



사기로 처세하고 삼국지로 성공하라

홍순도 지음

‘사기’는 춘추전국시대까지의 중국 역사 3천년을 다룬 통사다. 지배계층에서부터 평민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교훈적이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삼국지’는 중국 역가 가운데 ‘삼국시대’라는 혼란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갈량과 조조 등으로 대별되는 영웅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그 자체가 바로 모략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살다보면 인생은 고해(苦海)라는 말을 실감할 때가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다단한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처세(處世)와 모사(謀事)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사기’와 ‘삼국지’를 토대로 처세술에 초점을 맞춘 책이 발간됐다. 중국전문기자이자 번역가인 홍순도 씨가 펴낸 ‘사기로 처세하고 삼국지로 성공하라’는 동양 최고의 역사서에서 가려 뽑은 처세술과 성공학이다.

1부는 ‘사기’를 중심으로 의리, 탐욕, 관

용, 대세, 처신, 응변, 겸양을 다룬다. ‘의로움으로 감동시키고 이치로 설득시켜라’,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다’,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인재가 제대로 볼 수 있다’, ‘순간의 치욕을 참아 후세에 아름다운 얘기를 남기다’, ‘원칙에만 집착하는 것은 진부한 생각이다’,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인정하게 하라’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혜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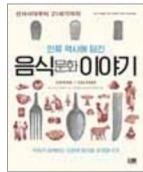
2부는 ‘삼국지’를 중심으로 계획, 용인, 적응, 허심, 진퇴, 신의에 초점을 맞춘다.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것이 승리의 전제조건이다’, ‘포상은 타당하게, 격려는 이치에 맞게’, ‘믿음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룬다’, ‘때로는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보여주어라’,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나아간다’,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고 같은을 구하되 다름을 인정하라’ 등도 세겨들을 맡았다.

“무엇보다 두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겪은 의리와 배신, 인간사의 갈등 등은 현대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장면과 다르지 않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며 삶을 주도해나갔다는 점이다.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던 그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올바른 처신의 자세와 세상살이의 본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더봄·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류 역사에 담긴 음식문화 이야기

린다 시비델로 지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식재료란 없을 것이다. 맛이란 문화와 자연 환경 그리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나아가 언제 어디서 먹어도 문화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맛이란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달팽이 요리에 거금을 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원에서 달팽이를 발견하면 밭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한 사람에게서는 고급요리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해충일 뿐이다.” (본문 중에서)

이탈리아 소설가이자 시인인 F.T. 마리네티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한다”고 달리 말하면 그의 말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기분이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음식은 단순한 생존에 필요한 요인을 넘어 다양한 의미로 환기된다. 더러는 권력이나 재물,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 예로 ‘사과’를 이야기해보자. 일반적으로 ‘사과’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어떤 이는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라고. 어떤 이는 이브가 따 먹은 선악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하루 한 개씩만 먹어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상상력이 뛰어난 이는 동화에 나오는 질투심 많은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건넨 독사과를 떠올릴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음식사를 가르쳤고 고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린다 시비델로가 음식의 문명사를 펴냈다. ‘인류 역사에 담긴 음식문화 이야기’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음식문화를 다룬다. 저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 인류의 음식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슬람교의 성직자들은 커피가 기도중에 졸음을 쫓아준다며 선호했다. 사진은 이스탄불의 커피하우스.

저자는 음식에 대한 관념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다는 관점을 취한다. “사람들은 한때 갑자기 나병을 일으키고, 설탕이 치통을 낫게 한다고 철석 같이 믿은 적도 있었다. 로마인들은 계피가 거대한 흥혈박쥐가 지키는 늪지에서 자란다고 믿었고, 미국인들은 한때 맥주가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음식문화사의 관점에서 써내려간 내용은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사실 인류는 불을 활용하면서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사냥과 채집해 온 것을 날것으로 먹었지만 불을 피우면서 익혀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음식의 변화 차원이 아닌 불을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저자는 전쟁은 음식문화에도 지대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본다. 전쟁이 발발하면 식량 자체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식량공급을 조절할 능력이 있는 편이 승리한다. 뿐만 아니라 농부의 노동력이 전투에 투입돼 농경지는 여성들에게 맡겨진다.

책에는 ‘백색의 황금’으로 불렸던 소금 이야기 등도 소개돼 있다. 소금값으로 만들어진 만리장성 이야기는 흥미를 끈다. 진시황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 생산을 독점해 세금을 징수했다. 저자는 이 소금 세가 상품에 대한 최초의 독점권 행사 사례로 추정된다고 본다. 이 밖에 책에는 커피를 사랑하게 된 프랑수아, 카우보이 음식, 약으로 시판됐던 코카콜라 등 다양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즉 저자는 음식을 중심으로 두고 이와 연관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담아낸다.

<린·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결혼 앞두고 겪는 갈등과 고민



한 권으로 읽는 베블런

엘리자베스 매켄지 지음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고양이를 기르며 살겠다고 선언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시대다. 갈수록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시대에, 남자가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다. 2016 아마존 베스트셀러, 2016 내셔널 북어워드 소설 후보에 올랐던 엘리자베스 매켄지의 소설 ‘한 권으로 읽는 베블런’이 나왔다.

다뤄질와 대화하는 사차원 예비신부 베블런과 균용의로기를 개발하는 야심만만

한 의사 풀은 서로 사랑하지만 너무나 다르다. 음식, 집, 옷차림, 동물, 환경, 돈 등 사사건건 대립을 한다. 사랑과 결혼에 관한 영웅적이고 사랑스러운 소설이라는 수사 담겨, 작품은 철학적이면서 감동적이다.

소설에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현실적 고민들이 섬세하게 묘사된다. 베블런과 풀은 매력적인 선남선녀 커플이지만, 실은 평생의 반려자에게조차 솔직해질 수 없고 인정하기 부끄러운 가족사를 안고 있다.

둘은 자신들의 부모가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에게 말할 수를 허거나 치부를 들릴까봐 전전긍긍한다. 다른 한편, 둘은 상대의 집안이 자신의 집안보다 조금 더 쿡가 루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부모를 안심시킨다. <스윙밴드·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들은 미디어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부고의 사회학

이완수 지음

일간 신문에는 매일 부고기사가 실린다. 부고를 알리는 기사가 시작되기 벌써 100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공자됐다. 한 개인의 죽음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표되고 평가된다. 특히 신문은 ‘부고’

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회에 널리 알린다.

동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완수 교수가 쓴 ‘부고의 사회학’은 죽음을 고지하는 부고기사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명한다. 저자는 특히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이 미디어에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꼼꼼하게 짚어낸다. 또한 이념적으로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고기사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반영돼 기록됐는지를 주목한다. <시간의 물레·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혼란한 국제 정세 이해하는 100개의 지도



지도로 보는 세계

보니파스 외 지음

지금까지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서구 중심의 가치관이다.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이분법의 논리, 강대국들의 의견, 정치적 토대가 단단했던 유럽 중심주의 시각이 오랫동안 지배했었다. <창아·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사실 세계를 구성하는 각국, 각 민족은 고유 의 세계관과 역사를 갖고 있으며, 상호 의존하면서 발전해왔다. 파스칼 보니파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장과 위베르 베드린 미테랑 대통령의 외교 보좌관이 펴낸 ‘지도로 보는 세계’는 혼란한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100개의 지도가 담겨 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왼쪽에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수록하고, 오른쪽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데 있다. <창아·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

010-8628-0482